

## 민선6기 문화정책 방향과 과제

정선기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I. 서론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자유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문화예술은 점점 더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확대되는 지식정보사회의 생활환경에서 심화되는 개인화 경향과 국제화 추세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촉발하고, 이에 상이한 인구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는 산업적 이해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핵심 정책 영역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 시민들의 다양해진 문화욕구를 고려한 차별적 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또한 대전시는 문화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 CT 인프라와 문화예술이 접목된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에도 힘을 써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대전의 도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문화정책이 단순히 시민의 여가소비 확대와 같은 소극적인 접근이 아닌,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민선 6기의 주요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문화정책의 기초를 검토하고, 향후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

장에서는 그간 ‘시민경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대전광역시가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민선6기 문화 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검토해 보고, 3장에서는 기존 대전광역시 문화정책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4장에서는 바람직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6기의 주요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 민선6기 문화정책의 기초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대전시는 ‘시민경청위원회’(인수위)의 검토를 거쳐 21대 핵심사업과 1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중 22건을 ‘아름다운 과학문화도시’ 영역의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선6기는 이전과 달리 ‘아름다운 과학문화도시’를 문화정책의 비전으로 표방하고, ‘문화체육국’(문화예술, 생활체육 등)과 ‘과학문화산업본부’(축제, 문화산업 등)에서 문화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민선6기 문화관련 공약사업은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근대문화예술 특구거리 조성’,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운 생활체육’, ‘대전시 3대 축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으로 상품화’, ‘과학비즈니스 벨트, 엑스포 과학공원 시민 품으로’ 등 6대 핵심과제의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이전과 달리 민선6기는 ‘과학문화도시’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워 ‘과학’과 ‘문화’의 융합에 기초한 대전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명확히 하면서, 과학기술 인프라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이나 문화예술 특구거리 조성 등과 같이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사업은 ‘아름다운 과학문화도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대표적인 문화관련 사업이라 할 수 있다[표 2]. 이처럼 부서간 경계를 넘어 협력적인 사업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것은 문화의 포괄적인 속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민선6기 ‘아름다운 과학문화도시’ 영역 공약사업

사업명	내용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근대문화예술 특구거리 조성	근대문화예술 특구 지정 운영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마련
	작은 과학문화도서관 설치
	프리마켓 육성 지원
	전통문화원 설립

사업명	내용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운 생활체육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Golden Plan' 수립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동네길 조성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및 개방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작은 체육관' 조성
	치유의 숲 조성
대전시 3대 축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으로 상품화	기존 축제에 대한 재검토·폐지 및 신규 축제 억제
	대전의 3대 대표축제 브랜드화
	시민과학축전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대전 계족산 맨발축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엑스포 과학공원 시민 품으로	시장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운영
	과학문화도서관 설치
	사이언스센터 계획 기본 기능 추진
	기초과학연구원 시민개방 요구
	대덕특구를 시민과학공업화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위한 체험 시민과학공원	

※ 출처 : 시민경청위원회(2014, 6)

민선6기의 대표적인 문화관련 역점 추진사업은 '대전시민과학축전의 브랜드화'와 '한국종합예술학교 중부캠퍼스 유치'를 들 수 있다[표 2]. 우선, 축제 사업은 기존의 난립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들은 폐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종래의 '사이언스페스티벌'을 WTA와 연계하여 대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과학문화교류 확대를 통해서 '과학도시'로서 대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중부권 거점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역점 추진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는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원도심은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유동인구는 증가했지만, 점차 높아지는 지가 등으로 인해 고유의 문화지구 기능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역에 국내의 대표적인 문

화예술 전문양성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기관유치 사업은 기존의 시민대학이나 지역대학의 이해관계와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표 2] 과학문화관련 핵심추진 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내용	예산
대전시민과학축전의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축제 재검토·폐지 및 신규 축제 억제</li> <li>• 사이언스페스티벌, WTA연계, 문화교류 및 체험</li> </ul>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위원회 구성, 실무 TF팀 운영</li> <li>• 문광부 및 학교와 협의기구 설치</li> </ul>	1,500

※ 출처 : 시민경찰위원회(2014. 6), 대전광역시(2014. 6)

대전광역시는 시민경찰위원회 제안사업에 기초해서 문화체육분야 9건(1,882억원)과 과학문화분야 7건(4,870억원) 등 모두 16개 사업(6,752억원)을 민선6기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으로 제시하였다[표 3]. 정책의 기초는 과학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첫째, 과학기술관련 축제를 발굴하여 대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 중점 추진사업을 제안하였다. 축제사업의 방향 전환은 그간 대전의 지역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특성 없이 무분별하게 개최되었던 축제를 지양하고, 시정의 역량을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과학문화행사는 전략적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문화산업과)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접근이다.

둘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를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은 과학문화도서관 설치'(문화체육시설과), '대덕특구를 시민과학 공원화'(과학특구과),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문화산업과), '사이언스센터 내 디지털 과학문화도서관 건립'(문화산업과), '시민창조제작실(FAB LAB) 공간 확충'(과학특구과) 등과 같은 사업은 시민의 생활속 과학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추진사업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민선6기 역점 추진사업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사업을 통해서 대전의 문화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 창작예술인들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조성’(문화예술과), ‘지역예술가의 공연·프리마켓 활성화’(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창작센터 운영’(문화산업과) 등의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후속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3] 민선6기 문화분야 주요 추진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비(억원)	담당부서
문화 체육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조성	154	문화예술과
	시민건강증진 ‘골든 플랜(Golden Plan)’ 수립 시행	343	체육지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 추진	1,000	문화체육시설과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 추진	51	종무문화재과
	작은 과학문화도서관 설치	30	문화체육시설과
	지역예술가의 공연·프리마켓 활성화	9.5	문화예술과
	대전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	101	관광산업과
	작은 체육관 조성	20	체육지원과
	숲길 운동시설 정비 보급	174	공원녹지과
과학 문화	대덕특구를 시민과학 공원화	379	과학특구과
	국제회의산업 육성	1,885	문화산업과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	2,500	문화산업과
	사이언스센터 내 디지털 과학문화도서관 건립	30	문화산업과
	시민창조 제작실(FAB LAB) 공간 확충	31.4	과학특구과
	만화·웹툰 창작센터 운영	45	문화산업과
	기존 축제 종합 재검토 및 개선	-	관광산업과
합 계		6,752.9	

대전광역시가 시민경청위원회 제안사업에 기초해서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임

※ 출처 : 대전광역시(2014. 8)

넷째, ‘대덕특구를 시민과학 공원화’(과학특구과), ‘작은 과학문화도서관 설치’(문화체육시설과), ‘시민건강증진 골든 플랜’(Golden Plan), ‘수립 시행’(체육지원과), ‘작은 체육관 조성’(체육지원과), ‘숲길 운동시설 정비 보급’(공원녹지과) 등과 같은 사업은 점차 중요해지는 시민들의 여가문화 여건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 단위의 생활권 내 여가환경이 중요해지고, 생활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한 소규모의 도서관이나 체육관 조성 사업은 충분히 의미를 가지는 정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민선6기 문화정책의 과제

대전은 전국 광역대도시 중에서 고급연구인력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오래 전부터 문화 및 여가생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간 고급예술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기울어 있다는 비판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문화 여건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을 자원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문화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가와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생활권 중심의 문화향유 여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표 4]. 물론 이는 생활여건이 변하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지만,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생활권 문화환경 만족도

질문 내용	만족도	표준편차	N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2.89	0.696	1011
지역의 문화향유 여건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71	0.884	1011

2012년 대전발전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원자료 활용  
평균은 3점(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표5]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행사나 공연프로그램의 공급, 문화시설이나 공간의 제공 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생활권별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간 대전광역시시는 대규모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의 구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다목적 대형 문화시설 여건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어떤 측면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 이제 대전은 문화정책의 관점을 전환하여 무엇보다도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문화시설에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생활권 문화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질문 내용	만족도	표준편차	N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2.81	1.045	1011
문화행사 및 공연프로그램이 얼마나 제공됩니까?	3.28	1.058	1011
문화강습이나 강좌가 얼마나 있습니까?	3.13	1.017	1011
동네의 문화시설이나 공간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3.35	1.125	1011

2012년 대전발전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원자료를 활용  
 평균은 3점(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시민들은 생활권 내에 가장 필요한 시설로 ‘콘서트홀’(15.6%)과 ‘소극장’(15%)을 지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화관’(13.5%), ‘도서관’(12.5%), ‘전시장’(11.9)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6].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간 대전광역시가 소극장, 소공연장, 골목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여가문화 시설의 확충에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직도 그런 시설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 대전광역시 문화정책의 방향이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즉 ‘생활 속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목표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지역의 문화향유를 위해 필요한 시설

구분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소극장	콘서트홀	구민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시장	합계
빈도	293	392	372	232	435	452	123	221	38	345	2903
%	10.1	13.5	12.8	8.0	15.0	15.6	4.2	7.6	1.3	11.9	100.0

2012년 대전발전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원자료 활용

생활권 문화시설의 활성화는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마을 단위 주민을 위한 시설공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시설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존 시설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건물의 조성이 아닌 가능하면 기존 유휴시설들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개조에는 주민들의 생각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참여시키고, 그 과정이 마을 단위의 문화적 소통과 연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7] 지역간 문화불균형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문항 내용	빈도	퍼센트
문화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	369	36.5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	226	22.4
문화여건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	185	18.3
지역 예술인의 지원 및 육성	42	4.2
자치구의 문화경비 보조금 재원 확대	58	5.7
문화부문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31	13.0
합계	1011	100.0

2012년 대전발전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원자료를 활용



또한, 생활권간 문화향유 여건의 불평등 문제도 고려해야만 한다. [표 7]과 같이 시민들은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문화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36.5%)를 지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화공간 확대 및 투자의 활성화’(22.4%), ‘문화여건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18.3%)을 들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정책이 생활권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되, 지역간 문화의 특성과 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마다 개최되는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자발적인 참여가 결여된 지나친 사업성과 정체성의 결여를 문제로 지적한다[표 9]. 지역 축제는 ‘광역시 단위의 축제’, ‘기초지자체 단위의 축제’, ‘마을이나 생활권 중심의 행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을이나 생활권 중심의 축제들은 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역시나 구 단위 축제는 대부분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표 8] 지역축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

문항 내용	빈도	퍼센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	184	18.3
지나친 상업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269	26.8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	213	21.2
편의시설을 늘려야 한다	118	11.7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	87	8.7
주민 참여가 많아져야 한다	134	13.3
합 계	1005	100.0

2012년 대전발전연구원이 설문조사한 원자료를 활용

축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일종의 놀이이며,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문화행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축제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획·개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전은 그간 ‘외인축제’와 같은 지역의 대표적인 축

제가 ‘지역 특성의 반영’, ‘주민의 참여와 연대’,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으로 대전의 지역 축제는 지나친 상업성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즐기면서, 공동체의 연대와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민선6기 대전의 문화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기존 축제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것들을 폐지 또는 개선하면서,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과학문화행사를 확대·지원하여 대전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축제정책의 변화는 그간 상업성에 치우쳤던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전의 정체성을 강화의 방향으로 축제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한 문화의 산업적 활용 전략이다. 그간 대전시는 대전문화재단과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민선6기와 같이 적극적으로 CT와 예술이 융합된 창작 활동 공간을 확충·지원하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사이언스콤플렉스의 공공성 강화’, ‘FAB LAB 공간 확충’, ‘만화·웹툰 창작센터 운영’ 등과 같은 사업 제안은 과학문화도시로서 대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의 일상적 여가문화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물론 그간에도 대덕의 과학기술 자원을 지역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 인프라를 시민의 일상적 여가문화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덕특구를 시민의 과학 공원으로 활용’하고, ‘사이언스센터 내에 디지털 과학문화도서관을 건립’하는 등의 사업은 과학문화를 시민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문화정책은 결국 지역의 기본적인 창작예술 토양이 풍요로워야만 그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

치'는 설득력을 가지는 사업전략이며,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조성'이나 '지역예술가의 공연·프리마켓 활성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최근의 문화정책의 초점은 점차 생활권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일상적 체험과 참여가 점점 더 중요한 정책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역시 문화가 가지는 포괄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역시 대전의 문화예술 정책도 주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 (2014. 6), 「권선택 당선자 공약실천 로드맵」
  - 대전광역시 (2014. 8),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
  - 박노동·김흥태 (2012),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선거캠프 (2014. 6), 「“권선택 당선자” 세부공약내용」, 매니패스토 정책자료집
  - 시민경청위원회 (2014. 6), 「약속, 그리고 선택 - 민선6기 권선택의 약속사업 실천방안」
-